

헤겔: 첫단추

“헤겔의 사상에 대한 탁월한 소개. 헤겔이 역사적 맥락에서 제 위치를 찾으며 주인/노예 변증법의 딱딱한 왈츠가 경제의 측면에서 조명된다. 싱어는 시시때때로 촌철살인의 비유를 구사한다.”

게일런 스트로슨, 《선데이 타임스》

헤겔

첫단추

피터 싱어

헌사

아버지 어니스트 싱어를 기리며

머리말

19 세기나 20 세기 철학자 중에서 헤겔 만큼 큰 영향을 세상에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단호한 선언의 유일한 예외는 카를 마르크스일 텐데, 마르크스 자신은 헤겔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헤겔이 없었다면 지난 150 년의 지적·정치적 발전이 지금 같은 경로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헤겔의 영향만 놓고 봐도 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헤겔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의 심오한 사상이 도달한 결론은 현대 독자에게 괴상하고 심지어 터무니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철학에는 오늘날까지도 힘을 발휘하는 논증과 통찰이 담겨 있다. 헤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논증과 통찰뿐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을 시험하는 과제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헤겔이 까다롭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헤겔에 대한 논평들은 “히말라야처럼 혹독한” 문장, “혐오스러운 용어”, “지독하게 모호한” 사유 같은 표현으로 가득하다.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헤겔의 최고 걸작으로 여기는 『정신현상학』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도록 하겠다. 596 쪽의 완전한 첫 문장은 이렇다. “‘유용한 것’은 앞에서 본 세 요소가 끊임없는 교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서 자체 내로 복귀해가는 움직임이라고도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또 어디까지나 하나의 것만이 구태여 들춰내진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두 요소와 나란히 있는 추상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정신현상학 2』 154 쪽] 물론 문장을 문맥에서 떼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헤겔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올 것이다. 750 쪽에 이르는 『정신현상학』의 매 쪽마다 이것 못지않게 까다로운 문장이 나온다. 이런 철학자의 연구를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얇은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첫째 방법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는 헤겔의 사상을 전부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미학 강의』나 『역사철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 강요』에서 헤겔이 한 말은 논의중인 다른 저작과 겹칠 때 말고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백과사전 강요』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저작에서 다루지 않는 주요 부분은 자연철학에 대한 것이다.) 물론 생략한 부분이 사소하지는 않지만, 헤겔 자신도 이것들이 자신의 철학 체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자 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헤겔이 틀림없이 자신의 핵심 저작으로 여겼을) 『논리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

락된 것이다. 『논리학』의 목표, 방법, 느낌을 전달하려고 해봤지만, 이 두껍고 추상적인 책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내 생각에 이 얇은 헤겔 입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헤겔의 고고한 사상을 초심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나의 두 번째 전략은 최대한 평탄한 접근로를 고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헤겔의 사상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덜 추상적인 역사철학에서 출발한다. 거기서부터 사회적·정치적 수준을 유지한 채로 자유와 합리적 사회 조직에 대한 그의 견해를 향해 올라간다. 그래야만 『정신현상학』의 바위투성이 봉우리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좀 더 힘을 내어 『논리학』까지 올라갈 것이다.

헤겔 학자들은 내가 고른 저작이나 나의 논의 순서에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언급했듯 나의 순서는 헤겔이 자신의 사상을 설명했을 법한 순서와 무관하다. 저작 선정과 관련하여, 헤겔이 『역사철학 강의』를 (이른다면) 『백과사전 강요』의 자연철학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겼으리라고 암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논의할 지면이 없다는 것뿐이다. 나는 헤겔의 역사철학이 그의 자연철학에 비해 현대 사상의 발전에 더 중요하며 오늘날까지도 일반 독자에게 훨씬 흥미로울 것이라 확신한다. (제목에 속지 말 것. 헤겔의 자연철학은 숲과 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의 발견들이 그의 논리 범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밝히려는 시도다. 헤겔이 한 말은 그 뒤로 상당수가 한물갔다. 이른다면 자연이 발전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진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의해 반박된다.) 따라서 나의 저작 선정은 서로 별개인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이 헤겔의 사상에 중심적인가, 이 책의 분량 안에서 일반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다.

이 책에 담긴 헤겔에 대한 견해는 여러 사람에게 빛지고 있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운 좋게도 J. L. H. 토머스의 명강의 시리즈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 토머스는 학생들에게 『정신현상학』의 구절들을 이해될 때까지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도록 했다. 패트릭 가디너의 포괄적인 독일 관념론 강좌는 토머스의 꼼꼼한 강좌를 훌륭히 보완했다. 나는 여러 저자들에게서 (바라건대) 최상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차용했다. 특히 리처드 노먼의 『헤겔의 정신현상학 Hegel's Phenomenology』, 아이번 솔의 『헤겔 형이상학 입문 An Introduction to Hegel's Metaphysics』, 월터 카우프먼의 『헤겔 Hegel』, 찰스 테일러의 『헤겔 Hegel』을 많이 참고했다. 밥 솔로몬과 헨리 하디, 키스 토머스, 익명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직원은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훌륭히 입력해준 진 아처, 여름 휴가 때 일하는 것을 허락해준 루스, 매리언, 에스터에게 감사한다.

피터 싱어

차례

삽화 목록

1 헤겔의 시대와 생애

2 목적이 있는 역사

3 자유와 공동체

4 정신의 오디세이아

5 논리와 변증법

6 이후

인용 출처

참고 문헌

삽화 목록

1 헤겔이 태어날 때 가족이 살던 슈투트가르트의 집

사진: AKG London

2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

© Gianni Dagli Orti/Corbis

3 이마누엘 칸트(1724~1804)

Hulton Getty Picture Collection

4 프리드리히 실러(1759~1805)

Hulton Getty Picture Collection

5 석가모니(c. 563~483 BCE)

© Luca I Tettoni/Corbis

6 마르틴 루터(1483~1546)

© Corbis

7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된 1789 년 바스티유 감옥 함락

© Gianni Dagli Orti/Corbis

8 이사야 벌린(1909~1997)

Hulton Getty Picture Collection

9 강의중인 헤겔

사진: AKG London

10 F. H. 브래들리(1846~1924)

Merton College, Oxford

11 계획 공동체

Hulton Getty Picture Collection

12 무계획 공동체

FPG/Telegraph Colour Library

13 교수복 차림의 헤겔

사진: AKG London

14 자의식이 또 다른 자의식을 인식하는 순간?

© Vince Streano/Corbis

15 노예가 인정을 추구하다

Hulton Getty Picture Collection

1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21~180)

© Araldo de Luca/Corbis

17 학생 시절의 카를 마르크스(1818~1883)

Collecti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Amsterdam

18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

19 청년헤겔학파의 논쟁을 묘사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그림(1820~1895)

Collecti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Amsterdam

20 루트비히 포이어바흐(1804~1872)

Mary Evans Picture Library



1. 헤겔이 태어날 때 가족이 살던 슈투트가르트의 집.

1 장

헤겔의 시대와 생애

헤겔의 시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1770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뷔르템베르크 공국 궁정에서 하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다른 친척들은 교사나 루터파 성직자였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별달리 할 얘기가 없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으로 중대한 시기였다.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 유럽에 퍼졌다. 이때 워즈워스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썼다.

그 새벽에 살아 있는 것은 희망이었네,
하지만 짧은 것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지!

헤겔이 열아홉 번째 생일을 맞기 직전이었다. 헤겔도 훗날 프랑스 혁명을 ‘영광스러운 새벽’으로 불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생각하는 존재가 이 시대의 환희에 동참했다.” 헤겔도 환희에 함께했다. 어느 일요일 봄날 아침 그는 혁명으로 씨를 뿌린 희망을 상징하는 자유의 나무를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심었다. 헤겔이 스물한 살 되었을 때 혁명 전쟁이 발발했으며 독일은 금세 혁명군의 침공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독일로 알고 있는 지역은 당시에 300여 개의 주, 공국, 자유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들은 신성로마제국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었으며 통치자는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1세였다. 이 1000년 제국을 끝장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그는 울름과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1806년에 예나 전투에서 독일 제 2의 왕국인 프로이센의 군대를 격파했다. 헤겔은 이때 예나에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

은 헤겔이 패배한 독일 왕국 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나가 프랑스에 점령된 이튿날 그가 쓴 편지에는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나 있다. “황제가, 이 세계 정신이 말을 타고 도시를 통과하며 군대를 사열하는 광경을 봤다네. 이곳에서 하나의 점으로 집중된 저런 사람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광경은 실로 경이롭더군.”

이 존경심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스리던 시기 내내 이어졌으며, 1814년에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헤겔은 이 일을 어마어마한 천재가 범인의 손에 파멸한 비극적 장면으로 묘사했다.

1806년부터 1814년까지의 프랑스 패권기는 독일 개혁의 시기였다. 프로이센에서는 자유주의자 폰 슈타인이 국왕 수석 자문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농노제를 곧장 폐지하고 정부 조직을 재편했다. 뒤를 이은 폰 하르텐베르크는 프로이센에 대의제 헌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개혁에 흥미를 잃었으며 몇 년간 미루다가 1823년에 (자문 권한밖에 없으며 지주 일색인) 지방 의회를 창설한 것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1819년 카를스바트 회의에서 독일의 모든 주는 신문과 잡지를 검열하고 혁명 사상의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헤겔이 살았던 시기는 독일 문학의 황금기였다. 헤겔은 괴테보다 스무 살 아래, 실러보다 열 살 아래였으나 그들의 원숙한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꼬박꼬박 음미했다. 그는 시인 뢰넬린의 친한 친구였으며, 독일 낭만주의를 이끈 노발리스, 헤르더, 슐라이어마허, 슐레겔 형제 등과 동시대인이었다. 헤겔은 괴테와 실러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낭만주의 운동의 일부 사상에 틀림없이 빠져 있었으나 낭만주의의 입장을 대부분 거부했다.



2.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

헤겔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연구하던 시기에 독일 철학이 처한 상태였다. 헤겔 사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칸트에서 출발하여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일별해야 한다.

이마누엘 칸트는 1781년에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했다. 현재 이 책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철학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칸트의 목표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 앞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없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눈과 귀를 비롯한 감각 기관이 얻은 정보를 정신이 결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앎이 가능한 것은 정신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 시간, 물질의 열개 안에서 세상을 알지만, 공간, 시간, 물질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저기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나 이성의 창조물이다. 직관이나 이성이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열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 물음은 결코 대답할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 (칸트가 ‘물자체’의 세계라고 부른) 독립적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영영 벗어나 있다.

칸트 생전에 그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순수이성 비판』 만이 아니었다. 윤리학을 다룬 『실천이성 비판』 과 미학을 주로 다룬 『판단력 비판』 도 있었다. 『실천이성 비판』 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도덕 법칙을 따를 능력이 있으면서도 신체적 본성에서 비롯하는 비합리적 욕망에 이끌려 도덕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의무를 단지 의무이기에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제외한 모든 욕망을 억압해야 한다. 인간 본성의 이성적 측면에만 기반한 이 도덕관과 대조적으로 『판단력 비판』 에서는 오성과 상상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마누엘 칸트(1724~1804).

『순수이성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칸트는 자신이 걸은 비판철학의 길을 사람들이 따른다면 “많은 세기가 성취할 수 없었던 일”, 말하자면 “인간 이성이, 그것의 지식욕이 항상 종사하였으되 지금까지는 헛수고였던 것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도록 하는 일”을 “금세기가 경과하기 전에 달성될 수 있거나 않을까”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순수이성비판 2』 (아카넷, 2014) 973 쪽] 칸트의 성취가 어쩌나 인상적이었던지 한동안은 칸트뿐 아니라 그의 독자들이 보기에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채우기만 하면 모든 철학이 완성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점차 칸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만의 첫 번째 원인은 ‘물자체’에 대한 칸트의 견해였다.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 이성 능력의 불만족스러운 한계처럼 보였다. 게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서도 그것이 존재하고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물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담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요한 피히테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칸트 철학에 대해 칸트 자신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히테의 관점에서는 온 세계가 우리의 능동적 정신에 의해 구성된다. 정신이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만의 두 번째 원인은 칸트의 도덕철학에 함축된 인간 본성의 구분이었다. 이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한 사람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를 쓴 실러였다. 그도 자신이 칸트를 이용하여 칸트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다. 오성과 상상력의 합일로서의 미적 판단 모형은 『판단력 비판』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합일과 마찬가지로 조화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간 본성이 이성과 감성으로 영원히 나뉘었으며 우리의 도덕적 삶이 둘 사이의 영원한 투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모멸스럽고 패배주의적이다. 어쩌면 실러는 칸트가 오늘날 인간 삶의 안타까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순수한 예술 형태로 칭송받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합일했다. 따라서 실러는 오랫동안 잃었던 인간 본성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미적 감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헤겔은 훗날 칸트의 철학이 “근대 독일 철학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피히테와 실러가 이 출발의 방향을 나름의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여도 괜찮을 것이다. 알 수 없는 물자체와 스스로에 대해 분리된 인간 본성 개념은 둘 다 칸트의 계승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헤겔은 초기 논문에서 실러가 인간 본성에 대한 칸트의 견해에 반대한 것, 특히 이 부조화가 인간 본성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적 교육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헤겔은 그 임무를 철학의 몫으로 여겼다.

헤겔의 생애

헤겔은 학창 시절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튿날 튀빙겐 신학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이곳에서 시인 훔볼트와 어리지만 매우 유능한 철학도 프리드리히 셸링과 친구가 되었다. 셸링은 헤겔이 알려지기 전부터 철학자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된다. 훗날 자신의 명성이 헤겔에 가려지자 셸링은 옛 친구가 자신의 사상을 가로챘다고 불평했다. 셸링은 오늘날 거의 읽히지 않지만, 그의 견해와 헤겔의 견해가 무척 비슷한 것을 보면 불만을 품을 만도 했다. 두 사람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헤겔이 이룬 성과가 훨씬 크긴 했지만.



4. 프리드리히 실러(1759~1805).

튀빙겐에서 학업을 마친 헤겔은 스위스의 부잣집에 가정 교사로 들어갔다. 뒤이어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 이 시기에 헤겔은 계속해서 철학적 문제에 대해 읽고 생각했다. 종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었다. 논문을 보면 그의 사유가 급진적 노선을 따라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가 소크라테스와 비교되고 결정적으로 열등한 윤리학 교사로 평가된다. 헤겔이 보기에 정통 종교는 인간을 조화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목표의 걸림돌이다. 인간 자신이 가진 사유의 힘을 외부 권위에 종속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통 종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평생 동안 그에게 남아 있었으나 급진주의는 점차 누그러져 나중에는 루터파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루터파 교회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1799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헤겔은 (많지 않은) 유산을 상속받았다. 헤겔은 가정 교사를 그만두고 친구 셸링을 따라 바이마르라는 작은 주에 있는 예나 대학교에 취직했다. 예나에는 실러와 피히테가 있었으며 셸링은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헤겔은 발표한 글이 거의 없었으며 비공식 강의에 만족해야 했다.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온 소수의 학생에게서—1801년에는 열한 명, 1804년에는 서른 명이 수강했다—받은 소액의 수강료가 수입의 전부였다.

예나에서 헤겔은 피히테의 철학과 셸링의 철학과 차이점에 대해 긴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모든 면에서 셸링의 견해가 우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헤겔은 한동안 셸링과 함께 《철학 비판 Kritische Journal der Philosophie》이라는 학술지에서 일하면서 논문을 여러 편 기고했다. 1803년에 셸링이 예나를 떠났으며 헤겔은 첫 번째 주저 『정신현상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헤겔은 유산을 다 써버린 탓에 돈이 궁했다. 그래서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었는데, 현금을 미리 받을 수는 있었지만 1806년 10월 13일까지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승리한 뒤에 예나를 점령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다. 헤겔은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원고를 부랴부랴 마무리해야 했으며, 군대가 예나 외곽에 진주하여 아수라장이 벌어진 와중에 하나뿐인 원고를 보내야 했다. 다행히 원고는 무사히 전달되어 1807년 초에 출간되었다.

첫 반응은 호의적이었으나 열광적이지는 않았다. 서설에서 셸링의 견해(로 보이는 것)를 공격했으니 셸링이 역정을 낼 만도 했다. 헤겔은 편지를 써서 자신이 비판하려던 것은 셸링이 아니라 그의 하찮은 모방자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셸링은 서설만 보면 그게 그거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노여움을 거두지 않았다. 둘의 우정은 끝장났다.

예나에서의 삶은 프랑스의 점령으로 차질을 겪었다.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헤겔은 1년간 신문 편집자로 일하다 뉘른베르크 김나지움의 교장직을 받아들였다. 그는 9년간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공을 거뒀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다.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뉘른베르크에서 헤겔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예나에 있을 때 하숙집 여주인과의 사이에 사생아를 낳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여주인은 그전에도 다른 연인들과의 사이에서 사생아 두 명을 낳았다. 1811년에 헤겔은 41세의 나이로 유서 깊은 뉘른베르크 가문의 여인과 결혼했다. 그녀의 나이는 헤겔의 반에 불과했지만, 결혼 생활은 어느 모로 보나 행복했다. 헤겔 부부는 아들을 둘 낳았으며, 사생아의 어머니가 죽자 헤겔의 아내는 너그럽게도 아이를 받아들였다.

이 시기에 헤겔은 두툼한 『논리학』을 발표했는데, 이 책은 1812년, 1813년, 1816년에 걸쳐 세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제 그의 저작은 널리 인정받았으며 1816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철학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곳에서 헤겔은 자신의 철학 체계 전체를 비교적 간략하게 천명한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 강요』를 썼다. 내용 중 상당수는 헤겔의 다른 저작에도 (확장된 형태로) 들어 있다.

헤겔의 평판이 어찌나 커졌던지 프로이센 교육부에서는 베를린 대학교 철학과 학과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제안했다. 당시에 프로이센은 폰 슈타인과 폰 하르덴베르크의 개혁으로 교육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베를린은 독일 모든 주의 지적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헤겔은 학과장 제안을 단박에 수락했으며 1818년부터 1831년 사망할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헤겔의 생애에서 이 마지막 시기는 모든 면에서 정점이었다. 그는 『법철학』을 출간하고 역사철학, 종교철학, 미학, 철학사를 강의했다. 통상적 의미에서 좋은 강사는 아니었지만 틀림없이 학생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학생의 묘사를 읽어보자.

처음에는 그의 전달 방식이나 사유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기진맥진하고 시무룩한 체 마치 주저앉은 듯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며 말을 하면서도 공책을 앞뒤로 살살이 넘기며 내용을 찾았다. 연신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하는 바람에 강의의 맥이 끊겼다. 문장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뚝뚝 끊어지고 뒤죽박죽인 채 힘겹게 발음되었다. …… 문장이 술술 흘러나온다는 것은 연사가 주제를 장악하고 숙지했다는 뜻이지만, 이 사람은 사물의 가장 깊은 토대에서 가장 강력한 생각들을 끌어올려야 했다. 이 어려움과 어마어마한 고충을 그의 전달 방식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제 헤겔은 많은 청중을 끌어모으는 강연자가 되었다. 독일어권 전역에서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많은 수재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기를 덧붙여 그의 강의록을 편집하고 출간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철학 강의』, 『미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철학사 강의』 등 여러 저작이 우리 손에 남았다.

1830년에 헤겔은 명성에 걸맞게 베를린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에 61세의 나이로 갑자기 병이 들어 이튿날 자다가 죽었다. 그의 동료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끔찍한 공허인가! 그는 우리 대학의 주춧돌이었다.”